

## ● 외환리포트

### 전일동향

전일대비 2.00원 상승한 1,443.80원에 마감

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.00원 상승한 1,443.80원에 마감했다.
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.90원 상승한 1,443.7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압송한 데 따른 지정학적 불안감이 달러화 강세를 유발하며 1,443.8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6.0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23.46이다.

### 전일 달러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 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1443.70	1449.60	1442.70	1443.80	1446.80

### 전일 엔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919.02	925.28	918.23	923.46

### 전일 유로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1689.40	1694.89	1686.11	1692.80

### 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1.32	-4.92	-10.42	-19.13
결제환율(수입)	-0.96	-3.84	-8.42	-15.62

\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

\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

\*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에서 확인 가능

### 금일 전망

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1,44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443.80) 대비 1.45원 상승한 1,443.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달러 약세와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수에 하락 압력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. 미 12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. 지수는 전월보다 0.3p 낮은 47.9를 기록하며 예상치 48.3을 하회했고, 하위지수 중 고용지수는 이전대비 0.9%p 상승한 44.9, 가격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58.5로 집계됐다. 이에 카시카리 미니애플리스 연은 총재는 미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하며, 중립 금리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평가하며 인플레이션이 여전

히 높지만 실업률은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. 한편, 베네수엘라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, 지난 밤 뉴욕증시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 강세 마감했다. 지정학적 리스크는 잠재적으로 영향이 누적될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투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. 이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흐름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고, 커스터디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환율 하방 압력이 나타날 전망이다.

다만, 수입업체 결제와 해외주식투자 환전 등 달러 실수요 매수세는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 
예상 범위

1439.50 ~ 1448.25 원

### 체크포인트

-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+21726.31 억원
-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.45원 ↑
- 美 다우지수 : 48977.18, +594.79p(+1.23%)
-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5.16 억달러
-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3610 억원

### 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